

KT74

해위에서 성공한 한민족을 위한 활동

백영숙 한민족재단 이사장

해위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의 국민으로서 민족의 의무를 충수하는 자 대한 영구적 의무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 민족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 조국계배의 의무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이다. 우리 나라에서 정하는 재외동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1월 기준으로 173개국에 6만 7천 6백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인口的 30% 이상으로 한 아주지역에 49%인 298만 명이 살고 있고 미주지역에 40% 정도 거주한 지역인 독일계배법과 거주지역에 65만 명이 있다. 우리 나라 인구의 12.5% 정도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국민으로서의 지위 5위이고 인구 대비 비율에 있어 이 나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이중의 15만 명이 1955년 이래 해위에 입양된 한민족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하고, 성별로는 남자가 3만 4천 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반수이상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위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의 자위는 거주국의 이민정책과 이민에 대한 사회 환경 그리고 거주국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다름을 알겠으며 한민족의 경우 그것에 대해서 거주국에 대한 애정에 대한 다양한 제약이 따르며 한민족의 생존에 대해 위협이 되고 있다. 그것으로 분파하고 이중언어 환경에서 소수민족의 입으로 언어의 장벽은 물론 생활권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겪어야 하는 이중 생활의 애환을 극복하고 성공한 한민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감동적이다.

성공한 한민족들이란 과학자로, 의사로, 법조인으로, 교육자로, 공무원으로 재능으로 거주국에서 주류에 합류하여 활약하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을 내리고 찾아야 할 거주지 사회에서 주류로서 활동하는 것은 모든 이민자의 비전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어의 자유를 주사, 경제력,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직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5일에는 8일째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제3회 세계한민족 여성대회는'에 23개국에서 참가한 10여 명의 해위거주 한민족여성들이 비로 2주이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민족 여성과 주류'인 '한민족 여성과 사회'이다.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한민족 여성들이 거주지에서 어떻게 주류가 될 수 있는가,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되는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대항들이 될 것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상분석과 전망에서 10여 명의 성공한 해위여성들이 주류의 길에 있는 때에 대해 논해 낸 이야기는 듣는이의 눈을 뜨겁게 뜨겁게 감동적이다.

이들의 성공담으로 영혼이 부르고 있다. 그리고 부양을 책임져야 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애동안에 딸들이 한두 명에 불과한 기억을 지니고 자랄 수 있는 64세의 중국 선봉자 조화주님 회장인 이경희씨를

제2회고는 심층한 34회생의 대우로이 30대와 40대에 속하는 이면 15세대의
고세대의 젊은 세대가 있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부문의 높은 지대교육의 제약을 느낄 수 있다.

[illegible]

호국헌에서 우리끼리 감동은 주대목은 권위주의에 성공한 태자의 경우 잊기
쉬운 부인이 공을 아끼고도 보람있게 기공헌하여 어머니의 노고에 대해 감사한
말은 어머니의 신념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충성의 성리에 힘입었다는
충성리는 모후에서 그리고 주조로써 대령한 우리나라 주조에서 그의 어머니의 노고
편익을 잊을지 위해 주조로 성공한 태자 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있었기 때문.

[illegible]

이 밖에도 동양에서, 일본에서, 동양국어로 책을 펴낸 사람도 상당한 10여명의 여러
한글서들을 펴내는데 이들을 배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인재들이라는
기쁨을 같이한다. 이들의 노력은 우리의 새문명의 꽃과 함께 피어날 때
우리나라에 큰 영광이 될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다행히도 우리는 어느 위크에서 애성부가 '세계 한인종 애성 회의'를 개최한. 제1회, 제2회, 제3회 하기 위해 12개 국에서 13명의 <지역감광관>을 선임하여 위촉한 것이다. 지역감광관들은 각국에서 30명 이상의 한인애성으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 각국의 한인애성들을 위한 영회 장구로써 활동하게 된다. 애성부는 지역의 제안사항들을 자원으로 하여 그 활동장소를 애성부내 국내애성단체들과 연락하며 2곳을 통해 국내와 외 애성들의 연계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여권을 폭동적 경향이동들의 공격적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결성된 <비시앙 아메리>의 제어로 볼판의 원 이 데르가
가 지극적인 반대를 통해 제제에 반대해 오는 한인종에
중국의 여권을 이 여권을 강화하고 정부 교육하는 것은 중국에
이러한 한계 있는 것을 기려해 왔다.